

한국천문연구원 행정부

김웅중 부장



KASI :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책상에 놓인 노트북이 참 예쁘네요.

김웅중 : 그래요? 회의가 여기 저기 많이 있다보니 항상 회의 자료를 들고 다닐 필요성도 있고,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면 회의 자료는 인쇄하지 않고 종이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트북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됐습니다.

KASI : 행정부 부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그 역할이 연구 부서를 지원이나 관리하는 일인가요?

김웅중 : 지원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원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와 행정은 같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구라는 축과 행정이라는 축이 있어서 그 둘이 균형을 맞춰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쪽이 한 쪽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KASI : 행정부 내에 여러 부서가 있죠?

김웅중 : 3월에 행정부장직을 맡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혁신 일을 맡고 있었죠. 현재 행정부에는 예산연구관리팀, 총무시설팀, 인사재무팀 등 총 3개 팀이 있습니다. 원래는 5개 팀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넉넉하다면 일을 세분하여 진행하는 게 좀더 전문성이 있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강한 업무를 중심으로 팀을 통합하였습니다.

KASI : 예산이나 인사라는 말을 들으면 소위 '파워' 있는 부서로 인식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웅중 :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내의 다른 부서들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지 파워 같은 건 없습니다. 행정도 서비스고, 연구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KASI : 혹시 두 축이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는 없나요?

김웅중 :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요인은 아닙니다. 일을 좀더 잘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죠. 제 주된 임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문제에 개입하여 그것을 해결하고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신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서 '도밀끝 정신'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를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연구원 모든 부서가 이런 정신을 갖고 함께 간다면 어려움 없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KASI : 연구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웅중 : 1990년부터 일을 했으니 17년쯤 되었네요. 다른 사람 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 군대 가고, 제대 후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다가 우연찮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는 회계를 전공했습니다. 연구원에 와서도 회계 일을 했었고 지금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죠.

KASI : 회계를 전공하셨다니, 돈 계산에는 상당히 밝으시겠네요?

김웅중 : 오히려 돈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다 한다는 재테크도 해본 적이 없네요. 연구원이라는 공적인 조직에서 돈 관리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나봅니다.

KASI :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김웅중 : 정말 천문이라는 것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천문을 접했으니까요. 매일 보고 듣는 게 천문이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교사천문연수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가벼운 천문 상식 수준이죠. 친구들을 만나서 가끔 별 이야기를 하면 신기하다는 듯 흥미롭게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천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KASI : 사기업의 인사라는 말은 중압감이 큰데요. 연구원은 어떤가요?

김웅중 : 연구원에서 인사 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좀 미약한 편입니다. 사기업처럼 인재 양성이라든가, 직원 교육과 같은 전략적인 인사 정책을 펼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작년부터 혁신사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KASI : 여러 가지 점에서 심적으로 부담이 큰 자리라 생각됩니다.

김웅중 : 한 직원이 복도에서 만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웃음이 적어진 것 같다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 모르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차츰 나아지겠죠.

KASI : 일 외에 삶의 낙(樂)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김웅중 :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없네요. 현재의 낙이라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근이 늦어져서 그나마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그 점이 이릅니다.

KASI :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중 : 행정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인정받고자 합니다. 행정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가치를 인정받는다든 건 결국 우리 연구원 전체의 가치가 높이 평가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천문연구원 잘 나간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더 자주 듣도록 보다 열심히 뛰어야죠.

KASI : 긴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